

《素問·異法方宜論》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鄭永燮 · 琴炯樹

I. 緒論

〈異法方宜論〉은 《太素》에는 卷十九 〈知方地〉에 있고¹⁾,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第九卷에 있었다.”²⁾고 하였으나, 王冰에 의해 註釋이 加해지면서 卷四 第十二章에 編述되었으³⁾, 《甲乙經》에는 卷六第二에, 《類經》에는 卷十二 第九章 〈論治類·五方病治不同〉에 分類되어 있다⁴⁾.

本篇에서는 地域이 다르므로 發生하는 疾病도 다르고, 그에 따른 治療方法 또한 다르나 각각 알맞은 곳이 있음을 論하여 篇名을 〈異法方宜論〉이라 하였다.⁵⁾

自然環境이 다르면 그곳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風俗, 習慣, 飲食 등 生活方式은 다르기 마련이며, 人體도 서로 다른 自然環境과 生活條件의 影響을 받게 되어 體質적으로 반드시 相異한 特徵을 形成하게 된다. 그러므로 疾病의 發生에 있어서도 각각 다르고, 治療에 있어서도 그 곳에 알맞은 治療法이 由來하게 되는 것이다.

本篇은, 臨床에 있어서 砭石, 毒藥, 灸炳, 九鍼, 導引按蹻의 五種 治法과 그 由來를 理解하고 각 地域의 特性에 알맞게 治療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治法을 綜合적으로 應用하여 治療하여야만 알맞은 治療가 될 수 있다는 治療의 大原則을 提示하였으나, 그 文章이 省略되어 있고 古文으로 難解한 부분이 많아 諸家의 註釋을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參考하지 않으면 理解하기가 어렵다. 또한 註釋家들의 見解가 相異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들을 比較考察하여 原文의 趣旨에 合當한 理論을 定立하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具體적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章으로 나누고 原文에 縣吐·校勘·字句解·較註를 달고 直譯과 意譯을 하였으며 考察을 하였다.

가. 原文은 《珍倣宋版印本》⁶⁾을 低本으로 하였고, 任⁷⁾의 《黃帝內經章句索引》을 中心으로 張⁸⁾의 《類經》, 程⁹⁾의 《素問註釋匯粹》, 程의 《內經講義》를 參考하여 內容別로 五章으로 나누었다.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다. 校勘은 楊¹⁰⁾의 《黃帝內經太素》, 林¹¹⁾

2) 林 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3) 王 冰: 黃帝內經素問, 珍倣宋板印, 中華書局.

4) 張介賓: 原本類經, 大成文化社, 서울, 1982.

5)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6) 王 冰: 黃帝內經素問, 珍倣宋板印, 中華書局.

7)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8) 註4)와 同

9) 程士德: 素問註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1) 註2)와 同

의 《新校正》, 郭¹²⁾의 《黃帝內經素問校注註語譯》, 河北醫學院¹³⁾의 《黃帝內經素問校釋》을 參考하였다.

〈研究資料〉

번호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2	馬蒔	明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素問集註	張
5	高世栻	清	素問直解	高
6	姚止庵	清	素問經註節解	姚
7	山東省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解
8	王琦等	198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마. 較註는 아래 8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은 註 가운데서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처리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아.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校勘에), 字句解에 (), 교주에 [], 引用文獻에 〈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III. 本論

第1章. 東方의 病證과 治法

【原文】

12)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註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黃帝問曰 醫之治病也에 一病而治各不同이나 皆愈는 何也오

岐伯이 對曰 地勢(1)使然也[1]니이다 故로 東方之域(2)은 天地之所始生也[2]라 魚鹽之地며 濱[1](3)傍水[3]하야 其民이 食魚而嗜(4)鹹하야 皆安其處하고 美(5)其食[4]하니 魚者는 使人[2]熱中(6)[5]하고 鹽[3]者는 勝血(7)[6]이라 故로 其民이 皆黑色疏(8)[7]오 其病이 皆爲癰瘍(9)이니 其治는 宜砭(10)石[8]이라 故로 砭石者는 亦從東方來요

【校勘】

1) 《太素》卷十九〈知方地篇〉과 《醫心方》卷一第一에는 ‘海濱’이 ‘濱海’로 되어 있는데, 《語譯》은 “《國語》의 注에 ‘濱은 近也라’라고 하였으니 ‘濱海’는 ‘近海’를 말한다.” 고 하였다.

2) 《語譯》에 “‘使人’二字는 衍文으로, ‘魚者熱中’과 ‘鹽者勝血’은 對句이다. 《本草衍義》에도 ‘使人’二字가 없다.”고 하였다.

3) 《語譯》은 “‘鹽’은 ‘鹹’의 잘못이다. ‘鹹勝血’은 〈宣明五氣篇〉의 ‘鹹走血’과 뜻이 附合된다.”고 하였다.

4) 《甲乙經》에는 ‘瘍’이 ‘腫’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地勢(지세): 地理形勢로서 高低, 寒熱, 燥濕 등의 要素를 뜻함

(2) 域(역): 區界也, 구역역

13)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3)海濱(해빈); 바닷가. 濱; 水際, 물가빈
- (4)嗜(기); 好也, 좋아할기
- (5)美(미); 甘也, 맛날미
- (6)熱中(열중); 腸胃에 熱이 積滯된 것
- (7)勝血(승혈); 血이 凝滯된 것
- (8)疎理(소리); 皮膚腠理가 疎하고 致密하지 않음
- (9)癰瘍(옹양); 癰은 氣血이 邪毒에 감촉되어 壅塞不通한다는 뜻이며, 紅腫하고 發熱, 疼痛하며 周圍한계가 뚜렷하고 化膿 전에는 창두가 없고 화농하면 쉽게 潰破되는 腫瘍
- (10)砭(뽕); 石針, 돌침뽕

【較註】

[1]地勢使然; 王馬張姚 등은 “九州八方은 모두 天氣에 통하니, 天에는 春夏秋冬의 四時가 있고 地에는 生長化收藏의 五氣가 있으므로 사람도 역시 여기에 相應한다. 그러므로 東方은 春生の 時令을 主宰하여 人氣도 發生해 나오므로 鍼石으로 그 外部를 治療하고, 南方은 夏長の 時令을 主宰하여 人氣도 외부로 發越하므로 微鍼으로 皮毛를 治療하고, 西方은 秋收의 時令을 主宰하여 人氣도 내부에 收藏이 되므로 毒藥으로 내부를 治療하고, 北方은 冬藏의 時令을 主宰하여 人體의 陽氣도 하부에 沈潛해 있으므로 艾炷으로 至陰에서 陽氣를 끌어내고, 中央濕土는 生化의 時令을 主宰하여 人氣도 가운데를 지키므로 導引按蹻로 그 氣가 四肢로 통하도록 하여야 하니, 이것이 地勢에 生長收藏의 차이가 있으므로 治法도 역시 다름이 있다는 것이다.”¹⁴⁾”고 하였고, 景岳

14)王; “地勢使然은 謂法天地生長收藏 及高下燥濕之勢라”, 馬; “四方의 地勢不同 故로 所治도 亦異요 不必拘用一法也라”, 張; “夫九州八方은 皆通于天氣 하니 天有春夏秋冬之四時하고 地有生長化收藏之五氣 而人亦應之라 是以로 東方은 主春生之令 而人氣도 亦發生于外 故로 宜鍼石以治其外하고 南方은 主夏長之令 而人氣도 更發越于外 故로 宜微鍼以治

은 “地勢가 다르면 風習도 다르므로 治法도 이것을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¹⁵⁾”고 하였다.

[2]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王景岳張 등은 “天地의 氣는 東方에서 올라가므로 東方은 陽氣가 發生하기 始作하는 곳이며, 發生하는 氣가 東方에서 始作하므로 四時에 있어서는 봄에 해당된다.”¹⁶⁾”고 하였다.

[3]魚鹽之地 海濱傍水; 王高姚 등은 “東方은 魚類와 소금이 생산되므로 ‘魚鹽之地’라 하였고, 소금은 바닷가에서 생산되고 魚類는 水中에서 잡히므로 ‘海濱傍水’라 하였다.”¹⁷⁾”고 하였고, 景岳은 “東南方은 地勢가 弱하므로 低濕하여 물이 많다. 그러므로 ‘魚鹽海濱’은 모두 물가의 地理的 利益이다.”¹⁸⁾”고 하였다.

[4]安其處 美其食; 王景岳高 등은 “地域이 비록 물가로서 環境이 좋지 아니하나 產物이 豊富하므로 거기에 安住하고 그 產物을 달게 먹는다.”¹⁹⁾”고 하였고, 姚는 “오랜

其皮毛하고 西方은 主秋收之令 而人氣도 亦收藏于內 故로 宜毒藥以治其內하고 北方은 主冬藏之令 而人之陽氣도 方沈潛于下 故로 宜艾炷以起陽氣于至陰하고 中央濕土는 主生化之令 而人氣도 亦守于中 故로 宜導引按蹻하여 使灌通于四末하니 此地勢有生長收藏之不同하여 而治法도 是亦有別也라”, 姚; “同一地也 而五方地勢不同하니 其爲病也에 治之도 自不得不異라”

15)景岳; “地勢不同 則其習이 有異 故로 治法도 亦隨而不一也라”

16)王; “法春氣也라”, 景岳; “天地之氣는 自東方而升하여 爲陽生之始 故로 發生之氣始於東方 而在時則爲春이라”, 張; “言天地始生之氣는 由東方之九野州也라”, 姚; “應時之春이라”, 白話解; “東方은 屬木而象春하니 爲天地始生之氣요 東方之區는 氣候溫和하여 好像四季中春天那樣하여 不太冷不太熱이라”

17)王; “魚鹽之地는 海之利也요 濱은 水際也니 隨業近之라”, 姚; “東方엔 有魚鹽之利 故로 曰魚鹽之地요 鹽出海濱하고 魚生水中 故로 曰海濱傍水라”

18)景岳; “地不滿東南 故로 東南은 低下而多水하니 魚鹽海濱이 皆傍水之地利也라”

習俗에 適應하며 生活한다.20)”고 하였다.

[5]魚者 使人熱中; 王姚今釋은 “熱中은 魚類의 性質이 火에 屬하여 많이 먹으면 熱이 내부에 積滯되어 밖으로 瘡癰을 발생시킨다.21)”고 하였고, 景岳은 “魚類는 鱗蟲으로 水中에서 생활하며, 水體는 外陰內陽이므로 熱中도 될 수 있으나 水는 寒을 좇아 化하니 脾寒한 者도 忌한다.22)”고 하였고, 高는 “魚類의 性質이 잘 움직이고 물을 차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魚類를 많이 먹으면 熱中이 된다.23)”고 하였다.

[6]鹽者勝血; 王景岳姚今釋은 “소금을 먹으면 渴症이 나는 것이 勝血의 徵兆이다.24)”고 하였고, 高白話解는 “소금은 맛이 짜고 萬物을 굳게 凝結시키므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煎맛이 血을 凝滯시킨다.25)”고 하였다.

[7]黑色疎理; 景岳은 “血이 虛하므로 顔色이 검고, 腠理가 성글다.26)”고 하였고, 高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煎 것을 즐겨 먹으므로 顔色이 검고, 熱이 鬱滯되면 血을 손상시키므로 疎理하게 된다. 疎理는 血이 虛하여 腠理가 성근 것을 말한다.27)”고 하였고, 白話解는 “煎맛은 腎臟으로 들어가고 腎은 黑色이므로 顔色이 검게 된다.28)”고 하였다.

[8]其治宜砭石; 王景岳高 등은 “砭石은 石鍼으로 磁鋒의 종류이다. 山海經에 高氏의 山에 玉과 같은 돌이 있어서 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類이다. 東方의 사람은 腠理가 성글어 癰瘍이 잘 발생하고, 그 病이 肌表에 있으므로 砭石으로 이를 다스리니 砭石이라는 것은 淺部를 치료하는 것이다.29)”고 하였

고, 白話解는 “砭石으로 찌르면 熱을 밖으로 내보내고, 또 血의 運行을 疏通시킬 수 있어서 病이 낫게 된다.30)”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醫師가 病을 治療할

20)姚: “性以習而遷이라”

21)王·姚: “魚發瘡은 則熱中之信이라, 今釋: “熱中은 魚性이 屬火하여 多食則熱積于中而癰發于外라”

22)景岳: “魚는 鱗蟲也라 魚生水中하니 水體는 外陰而內陽 故로 能熱中이나 然이나 水從寒化하니 亦脾寒者도 所忌라”

23)高: “魚性이 善動하고 不爲水寒 故로 多食魚者는 使人熱中이라”

24)王·姚: “鹽發渴은 則勝血之徵이라”, 景岳: “食鹽者는 渴하니 勝血之徵也라”, 今釋: “鹽味는 鹹하니 鹹能入血하여 少則養하고 過食則傷血 故로 說鹽者勝血이라하니라”

25)高: “鹽性은 味鹹하고 物着堅凝 故로 多食鹽者는 鹹味가 勝血이라”, 白話解: “多食鹽은 是能傷血而使血凝滯의이라”

26)景岳: “血弱故로 黑色疎理라”

27)高: “傍水嗜鹹 故로 其民이 皆黑色이오 熱中勝血 故로 其民이 皆疎理라 疎理는 血弱而腠理空疎也라”

28)白話解: “鹹味는 入腎하고 腎色은 黑이니 所以로 其人面黑이라”

29)王: “砭石은 謂以石爲鍼也라 山海經에 曰高氏之山에 有石如玉하야 可以爲鍼 則砭石也라”, 景岳: “砭石은 石鍼也니 卽磁鋒之屬이라 山海經에 曰高氏之山에 有石如玉하야 可以爲鍼이라하니 亦此類也라 東方之民은 疎理而癰瘍하니 其病이 在肌表 故로 用砭石이라 砭石者는 其治在淺이라”, 高: “其治宜砭石은 以石爲鍼이 所以治癰瘍也라”, 姚: “砭石은 謂以石爲鍼也라 山海經에 曰高氏之山에 有石如玉하야 可以爲鍼이라하니 則砭石也라”, 今釋: “砭石은 是我國最古老的醫療器械니 約起源于新石器時代라 用以砭으로 刺患部하야 以治療各種疼痛和排膿放血等이라 山海經에 云高氏之山에 其上多玉하고 其下多箴石이라하고 晉郭璞의 注에 箴石은 可以爲砭(砭)鍼하야 治癰腫이라하고 又禮記內則에 古者以石爲鍼은 所以爲刺病이라하니라”

30)白話解: “用砭石刺之 則就能泄熱하고 又能疏通血行하야 病就好了라”

때에 한가지 病을 각각 다른 方法으로 治療 하나 모두 나오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地勢가 그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東方 地域은 天地가 처음 발생하는 곳이고 물고기와 소금이 생산되는 곳이며 바닷가와 물가라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짠 것을 좋아하며, 모두 그들이 居處하는 곳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 飲食을 달게 여긴다. 물고기는 몸 속에 熱을 積滯시키고 짠 맛은 血을 凝滯시키므로 그곳 사람들은 모두 顏色이 검고 腠理가 성글며, 그 病은 모두 癰癘이 되니 治療는 砭石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砭石은 東方으로 부터 由來하였읍니다.

第2章. 西方의 病證과 治法

【原文】

西方者는 金玉之域이며 沙石之處로 天地之所收引也[9]라 其民5)이 陵6)[11]居而多風[10]하고 水土剛強[12][11]하야 其民이 不衣而褐[13]薦[14][12]하며 其民7)이 華食[15]而脂肪肥[13]라 故로 邪不能傷其形體8)하고 其病9)이 生於內[14]하니 其治는 宜毒藥[16][15]이라 故로 毒藥者는 亦從西方來요

【校勘】

5)于鬯은 “‘其民’은 ‘其地’라고 해야 한다. 下文의 ‘其民不衣而褐薦’의 影響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6)《後漢書西羌傳》의 賢注에 ‘陵’이 ‘山’으로 引用되어 있다.

7)《語譯》에 “‘其民華食’에서 ‘其民’二字는 衍文이다.”고 하였다.

8)《明抄二》에는 ‘形’字 밑에 ‘體’字가 없다.

9)《太素》와 《醫心方》에는 ‘病’ 밑에 ‘皆’字가 더 있다.

【字句解】

- (11)陵(릉); 大阜, 큰언덕릉
- (12)剛強(강강); 굳셈, 강함
- (13)褐(갈); 毛布, 털베갈
- (14)薦(천); 蒿席, 짚자리천
- (15)華食; 기름진 음식, 華; 美也, 좋을화
- (16)毒藥; 藥物을 총칭함

【較註】

【9】西方者 金玉之域 沙石之處 天地之所收引也; 王姚는 “西方은 時期的으로는 가을기운에 해당하므로 天地의 氣가 收斂한다. 31)”고 하였고, 馬景岳張高는 “西方은 金體로써 堅勁하므로 金玉과 沙石이 많이 생산되고, 天地의 氣는 서쪽에서 下降하므로 天地의 氣가 收引하게 되어 時期的으로 가을에 해당된다. 32)”고 하였으며, 白話解·今釋은 “西方은 高原으로 山이 많아서 金玉이 많이 생산되고, 땅이 沙石이 많으며, 氣候가 乾燥하면서도 바람이 많고 세게 불어 가을기운과 흡사하여 肅殺하고 收斂하는 氣象이다. 33)”고 하였다.

【10】其民陵居而多風; 王·姚는 “穴居하여

31)王: “西方者 金玉之域 沙石之處 天地之所收引也 是 法秋氣也라 引은 謂牽引使收斂也라”, 姚: “西方者 金玉之域 沙石之處 天地之所收引也 是 應時之秋라”

32)馬: “此는 言毒藥之所自始也라 天地肅殺之氣는 盛于西方 故로 西方者는 屬金 而金玉生之하고 沙石産之하니 天地之所收引也라”, 景岳: “地之剛은 在西方 故로 多金玉沙石이나 然이나 天地之氣는 自西而降 故로 爲天地之收引 而在時則應秋라”, 張: “地之剛은 在西方 故로 多金玉沙石이오 天地降收之氣는 從西北而及于東南이라”, 高: “西方金體는 堅勁 故로 西方者金玉之域이오 沙藏金 石藏玉 故로 爲沙石之處오 西方은 主秋하니 乃天地之所收引也라”

33)白話解: “西方之處는 高原而多山하야 盛産金玉이오 地多沙石하고 氣候燥而多風하야 風力勁急好似四季中的秋氣하니 具有肅殺收引의 氣象이라”, 今釋: “金玉의 金은 指金屬이오 玉은 指玉石이니 統指礦物이라 天地之所收引은 指收斂引急의 氣候特點이 猶如秋天의 景象이라”

사는 곳이 마치 陵室과 같다.34)”고 하였고, 馬·景岳·張·高 등은 “陵居는 高地帶에 居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곳에는 찬바람이 많이 분다.35)”고 하였다.

[11]水土剛強; 王·景岳·張 등은 “西方은 肅殺하는 金氣가 盛하므로 水質과 土質이 거칠다.36)”고 하였다.

[12]不衣而褐薦; 王·馬·景岳 등은 “衣服은 베나 비단이 아닌 毛布를 입고 풀로 만든 자리를 깔았다.37)”고 하였다.

[13]其民華食 而脂肥; 王·景岳·張 등은 “華는 기름진 飲食이니 酥酪製品과 肉類 등을 말한다. 이러한 飲食을 많이 먹으므로 脂肪質이 많아 肥滿이 된다.38)”고 하였다.

[14]邪不能傷其形體 其病生於內; 王·馬·景岳·張 등은 “水質과 土質이 거칠고 飲食이 기름져서 肌肉이 充實하고 皮膚와 腠理가 緻密하므로 外部에서 邪氣가 人體로 侵犯할 수가 없고, 飲食, 勞倦, 七情에 의한 內傷病이 생긴다.39)”고 하였다.

[15]其治宜毒藥; 王·馬·景岳 등은 “內部에 病이 발생하였으므로 鍼灸나 按蹻導引이 아닌 毒藥으로 치료해야만 한다. 毒藥이라는 것은 藥物과 食餌를 總括해서 말하니, 疾病을 除去할 수 있는 것 모두 毒藥이라고 할 수 있다.40)”고 하였고, 張은 “邪氣가 外部에서 侵犯한 것이 아니고, 病이 內部에서 發生하였으므로 有毒한 藥으로 攻伐해야 한다. 41)”고 하였고, 姚는 “臟腑의 病은 輕清淡白한 藥으로는 治療할 수가 없기 때문에 氣味가 重厚한 毒藥으로 治療하여야 한다. 42)”고 하였다.

【直譯】

西方은 金과 玉이 生産되는 地域이며 모래와 돌이 많은 곳으로 天地의 氣가 收斂하는 곳이다. 그 곳 사람들은 丘陵에 居住하

34)王; “居室如陵 故曰陵居라”, 姚; “西民이 穴居는 至今猶然하야 以陵爲居 故曰陵居라 詩에 言陶穴이 是矣니 注에 謂居室如陵이라”

35)馬; “其民이 倚高陵以爲居라”, 景岳; “陵居는 高處也라 故曰多風이라”, 張; “高平曰陸이오 陸大曰阜요 大阜曰陵이니 依山陵而居 故曰多風이라”, 高; “地勢高 故曰其民陵居라 陵은 高阜之嵐陵也니 陵居地高 故曰多風이라”, 白話解; “由於地勢和自然條件의 促成하야 所以該地區의 人民은 都倚陵居住而能忍受風寒이라”, 今釋; “陵居는 依山陵而居住라”

36)王·景岳; “金氣는 肅殺 故曰 水土剛強也라”, 張; “金氣는 堅肅 故曰 水土剛強이라”, 高; “西方은 金也라 故曰 水土剛強이라”, 姚; “其多風而剛強者는 以西方之氣清勁故也라”

37)王·今釋; “不衣絲絛 故曰 曰不衣오 褐은 謂毛布也요 薦은 謂細草也라”, 馬; “得金之氣하야 甚爲 剛強 故曰 斯民은 衣不用絲綿 而用毛布之褐이오 細草之薦이라”, 景岳; “不衣는 不事服飾也라 褐은 毛布也요 薦은 草茵也라”, 張; “不衣는 不事服飾也라 褐은 毛布也요 薦은 茵褥也라”, 高; “剛強于外하야 其民이 不衣而褐薦이라”, 姚; “不衣絲綿 故曰 曰不衣라 褐은 謂毛布也요 薦은 謂細草也라”, 白話解; “在衣物上은 不衣布帛 而服用毛布和草蓆이라”

38)王·姚; “華는 謂鮮美니 酥酪骨肉之類也라 以食鮮美 故曰人體脂肥라”, 景岳·張; “華는 濃厚也니 謂酥酪膏肉之類라 飲食華厚 故曰人多脂肥라”, 高; “剛強于內하야 其民華實而脂肥”, 今釋; “華食은 指吃鮮美的酥酪肉類食物이오 脂肥는 體內多脂肪이라”

39)王; “水土剛強하고 飲食脂肥하야 膚腠閉封하고 血氣充實 故曰 邪不能傷也라 內는 謂喜怒哀憂恐及 飲食男女之過甚也라”, 馬; “必用鮮華 而體則脂肥하니 所以로 外邪不得傷 而內傷之病生하니 凡七情飲食이 皆是也라 必宜用毒藥以治之라”, 景岳; “水土剛強하고 飲食肥厚하야 肌肉充實하고 膚腠閉密 故曰 邪不能傷其外나 而惟飲食男女七情病이 多生於內也라”, 張; “水土剛強하고 膚腠肥厚하니 是以로 外邪不能傷其形이나 惟飲食七情之病이 生于內也라”, 高; “內外剛強 故曰 邪不能傷其形體요 其病은 皆生于內之七情이라”, 姚; “邪는 外邪也니 六淫之邪必自外入에 今脂肥則腠密하고 褐薦則體溫 而邪無自而入이나 然이나 惟過于飽暖 則肥甘積于腸胃하야 情欲耗其眞元하야 病不在外而在于內矣라 內는 謂喜怒哀憂恐及 飲食男女之過甚也라”

40)王; “能攻其病 則謂之毒藥이라 以其血氣盛 肌肉堅 飲食華 水土強 故曰 病宜毒藥方으로 制御之라 藥은 謂草木蟲魚鳥獸之類니 皆能除病者也라”, 馬;

고 바람이 많으며 水質과 土質이 거칠어 옷을 입지 않고 毛布와 草席으로 생활하며, 그들은 기름진 飲食을 많이 먹어 肥滿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邪氣가 形體를 손상시킬 수 없으며 病證은 內部에서 發生하니 그 治法은 毒藥으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毒藥은 西方으로부터 由來하였읍니다.

第3章. 北方의 病證과 治法

【原文】

北方者는 天地10)所閉藏之域也16)라 其地 高하여 陵居17)하며 風寒冰冽11)(18)[17] 하니 其民이 樂野處而乳食18)하여 藏寒生滿病12)(19)[19]하니 其治는 宜灸炳20)[20] 이라 故로 灸炳者는 亦從北方來요

【校勘】

- 10) 《熊本》에는 ‘地’ 밑에 ‘之’字가 더 있다.
- 11) 《太素》에는 ‘冽’이 ‘凍’으로 되어 있다.
- 12) 《本草綱目》에는 ‘藏寒生滿病’이 ‘其病藏寒生病’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7)居(거): 常居也, 살거
- (18)冽(렬): 寒氣嚴, 맵게찰렬
- (19)滿病(만병): 脹滿病, 배가 몹시 불러

“如草木蟲魚鳥獸之類는 皆有毒藥이라 藏氣法時論에 云毒藥攻邪라하고 五運行大論에 云大毒治病은 十去其七이오 小毒治病은 十去其八이오 無毒治病은 十去其九라하니라”, 景岳·今釋: “病生於內 故로 非鍼灸按導所能治 而宜用毒藥也라 毒藥者는 總括藥餌而言이니 凡能除病者는 皆可稱爲毒藥이라 如五常政大論에 曰大毒治病은 十去其六이오 常毒治病은 十去其七이오 小毒治病은 十去其九之類가 是也라”, 高: “水土剛強하니 借毒藥以宜通 故로 其治는 宜毒藥이라 毒藥者는 中品下品の 有毒之藥也라”, 白話解: “但是多食脂肪하면 却能使病生於內하야 因而在治療上應用內服攻病之藥品以去其病하니 這是西方居民使用的治療方法이라”

오르면서 속이 그득한 감을 주는 病症(20) 灸炳(구열); 火艾燒灼, 뜸쭉을 태우는 것, 炳: 燒也, 사를열

【較註】

〔16〕北方者 天地所閉藏之域也; 王馬景岳 등은 “北方은 地勢가 높고 氣候가 매우 寒冷하여 겨울의 閉藏하는 氣象과 相應한다. 43)”고 하였다.

〔17〕其地高陵居 風寒冰冽; 王馬景岳 등은 “西北方은 地勢가 높아서 사람들이 구릉에서 살고, 그 곳은 바람이 많고 매우 추운 곳이다. 44)”고 하였다.

〔18〕其民樂野處而乳食; 馬景岳張 등은 “地勢가 높아 바람이 많이 불고 매우 추우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遊牧生活을 하며 동물의 젖을 먹고 살기를 좋아한다. 45)”고

41)張: “毒藥은 有毒之藥也라 五常政大論에 曰大毒治病 十去其六 常毒治病 十去其七 小毒治病 十去其九은 蓋上古에 以神農之上品の 無毒者는 可以久服長生 而中品下品の 有毒之藥以治病攻疾也라 邪不外入하고 病從內生 故로 宜毒藥治其內라”

42)姚: “臟腑之病은 非輕淡之藥이 所能治 故로 宜毒藥이라 毒藥者는 氣重味厚者也라”

43)王: “法冬氣也라”, 馬: “天地嚴凝之氣는 盛于北方 故로 北方者는 天地閉藏之域也라”, 景岳: “天地陰은 在北 故로 其氣閉藏 而在時則應冬이라”, 張: “西北方은 陰也니 是以로 閉藏之氣는 惟北이 更甚이라”, 高: “北方은 冬令陰寒 故로 天地所閉藏之域也라”, 白話解: “北方은 地勢較高하고 氣候嚴寒하야 水天雪地的環境이니 好似四季中冬天的閉藏氣象이라”

44)王: “法冬氣也라”, 馬: “其地最高하야 其居如陵이라”, 景岳·張: “地高陵居는 西北之勢也오 風寒冰冽은 陰氣勝也라”, 高: “地餘西北 故로 其地高도 亦如西方之陵居也오 風寒冰冽者는 其地多風而寒如冰之凜冽也라”, 姚: “地高陵居는 謂土阜之處오 風寒冰冽은 應時之冬이라”, 白話解: “因爲地勢較高하니 所以居民是倚陵而居라”

45)馬: “風寒冰冽하니 民思避之 故로 樂于野處하고 多食獸乳라”, 景岳: “野處乳食은 北人之性이니 胡地至今猶然이라”, 張: “野處乳食은 北人之性也라”, 高: “其民樂野處는 有時不欲居高也라 曠野獸多 故

하였다.

〔19〕藏寒生滿病；王·馬·景岳 등은 “地氣가 寒冷하고 동물의 젖도 역시 寒性이므로 臟이 寒冷하게 되고, 臟이 寒冷하면 잘 滯하므로 脹滿病이 생기게 된다.46)”고 하였고, 張·高는 “겨울의 閉藏하는 기운은 땅속 깊 이 저장되므로 中央土인 脾胃가 寒冷하게 되어 脹滿病이 發生한다.47)”고 하였다.

〔20〕其治宜灸熯；馬·高·姚·白話解는 “乳性 이 寒冷하므로 사람들의 藏氣도 역시 寒冷 해져서 脹滿病이 發生하므로 北方에서는 썩 뜸의 溫煖한 성질로 寒氣를 풀어지게 한다. 48)”고 하였고, 張은 “艾는 氷台라고도 한 다. 얼음을 등글게 깎아 太陽을 향하게 하여 艾가 햇빛을 받게 하면 불이 붙게 된다. 陽은 陰에서 발생하니 火는 水에서 生하고, 艾는 水中의 眞陽을 얻은 것이다. 北方은 陰인 寒氣만이 盛하여 陽氣가 閉藏되어 있 으니 艾熯로 灸를 하여 至陰의 下部에 眞陽 이 도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灸熯의 治療 法은 北方에서 由來하였다.49)”고 하였다.

【直譯】

北方은 天地의 氣가 閉藏하는 地域이다. 地帶가 높아서 丘陵에 살며 바람이 많고 몹 시 추우니, 그 곳 사람들은 들판에서 居處 하면서 乳製品을 먹기를 좋아하여 臟이 寒冷하게 되어 脹滿病이 發生하니 그 곳의 治 法은 灸熯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灸熯은 또 한 北方으로부터 由來하였읍니다.

第4章. 南方의 病證과 治法

【原文】

南方者는 天地所長養이오 陽之所盛處13) 也[21]라 其地14)下하고 水土(21)弱하야 霧(22)露之所聚也[22]니 其民이 嗜酸而食

로 樂野處而乳食이라”, 白話解: “因爲地勢較高하 니 所以居民是倚陵而居이나 但他們多是以游牧爲生 하니 所以又必須經常住於野處라”, 今釋: “樂野處는 樂于在野外居住니 卽游牧生活이라”

附15)(23)[23] 故로 其民이 皆繳(24)理而 赤色[24]하고 其病이 攣痺(25)니 其治는 宜微針(26)[25]이라 故로 九針(27)者는 亦從南方來오

【校勘】

13) 俞樾은 “‘陽之所盛處’는 옮겨쓸 때의 착오이니 ‘盛陽之所處’라고 해야 된다.”고 하였다.

14) 《太素》에는 ‘地’ 밑에 ‘汚’字가 더 있고, 《醫心方》에는 ‘注’字가 더 있는데, 《廣雅釋詁三》에 “注는 汚也라”고 한 것으로 보아 ‘汚’와 ‘注’는 異文同義이다.

15) 《新校正》에 “《全元起注本》에 ‘附’字가 ‘魚’字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甲乙經》에는 ‘附’가 ‘燥’로 되어 있으며, 《永樂大典》에는 ‘腐’로 되어 있는데, 俞樾은 말하기

46) 王: “水寒氷冽 故로 生病於藏寒也라”, 馬: “乳性頗寒하니 是以로 人之藏氣도 亦寒 而中滿之病生 이라”, 景岳·今釋: “地氣寒하고 乳性도 亦寒 故로 令人臟寒하고 臟寒하면 多滯 故로 生脹滿等病이 라”, 姚: “野處 則無重垣復壁하야 風寒易入 而且食 酥酪之屬이 則又性寒氣膩하니 凝滯于中하면 臟欲不 寒이나 其可得乎아 臟既寒矣면 氣閉不行하야 以致 中滿하야 胸腹腸臟之間이 膨脹如鼓하니 所以然者 는 地氣寒而臟又寒也라”, 白話解: “生活在寒冷地區 하고 又多食乳類 則易使臟寒 而生脹滿之病이라”

47) 張: “天秋收之氣는 收于內하고 冬藏之氣는 直閉 藏于至陰之下하니 是以로 中土處寒 而胸腹之間에 生脹滿之病矣라”, 高: “北方寒水氣勝하면 內臟陰寒 하야 多生脹滿之病이라”

48) 馬: “乳性頗寒하니 是以로 人之藏氣亦寒 而中滿 之病生 故로 北方之人은 必用灸熯하야 以煖之라”, 高: “其治에 宜艾火灸熯하야 以溫臟寒이라”, 姚: “去寒에 莫如灸熯이니 灸는 艾灼이오 熯은 火鍼火 罐之類也라”, 白話解: “在治療上에 可用灸熯하야 以暖氣散其寒하니 這是北方經常使用的灸熯方法이 라”

49) 張: “艾는 名氷台라 削氷令圓擧而向日하야 以艾 承其影 則得火라 夫陽生于陰하니 火生于水오 艾는 能得水中之眞陽者也라 北方은 陰寒獨盛하야 陽氣閉 藏하니 用艾熯灸之하야 能通接元陽于至陰之下라 是 以로 灸熯之法은 亦從北方而來也라”

를 “‘附’는 곧 ‘腐’字이므로, 王注에 ‘所食不芳香’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字句解】

(21)水土(수토); 水質과 土質로서 自然環境과 生活習慣을 말함

(22)霧(무); 霧(몽)也, 안개무

(23)附(부); 腐也, 썩을부

(24)緻(치); 密也, 뽁뽁할치

(25)攀痺(연비); 濕熱이 장기간 侵襲하여 筋脈이 당기고 저린 症狀

(26)微鍼(미침); 微細한 鍼으로 淺刺하는데 주로 사용함

(27)九鍼(구침); 鑿鍼, 圓鍼, 鍅鍼, 鋒鍼, 圓利鍼, 毫鍼, 長鍼으로 古代에 사용하던 鍼의 種類이다.

【較註】

[21]南方者 天地所長養 陽之所盛處也; 王·馬·景岳 등은 “南方은 天地의 氣가 따뜻하므로 萬物이 잘 자라는 여름에 相應하고, 陽氣가 가장 盛한 곳이다.”⁵⁰⁾고 하였다.

[22]其地下 水土弱 霧露之所聚也; 王·馬·景岳 등은 “東南方은 地勢가 낮고 濕하므로 水土가 弱하여 안개와 이슬이 많은 곳이다.”⁵¹⁾고 하였다.

[23]其民嗜酸而食附; 王·馬·景岳·姚·白話解는 “그곳 사람들은 신맛과 醬, 젓갈, 식혜 등 醱酵식품을 즐겨 먹는다.”⁵²⁾고 하였고, 張은 “附는 腐의 뜻으로 醬, 젓갈, 식혜 등 醱酵된 飲食物을 말한다. 南方은 浮長하는

氣이므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收斂作用을 하는 신맛을 좋아한다.”⁵³⁾고 하였고, 高는 “霧露가 모이는 곳이므로 그곳의 사람들은 신맛과 醱酵食品을 즐겨 먹는다. 東南方은 地勢가 弱하므로 나를 生해 주는 味를 좋아하게 되므로 신맛의 飲食을 즐겨 먹으니, 이는 木味가 火氣를 生하게 하는 것이다.”⁵⁴⁾고 하였다.

[24]緻理而赤色; 王·馬·景岳·白話解는 “신맛은 收斂作用이 있으므로 肌肉과 腠理를 緻密하게 하고, 南方은 陽이 盛한 곳으로 火에 屬하므로 赤色을 띤다.”⁵⁵⁾고 하였고,

51)王·今釋: “地下 則水流歸之하고 水多 故로 土弱而霧露聚라”, 馬: “地不滿東南 故로 其地最下而水土弱하고 霧露는 由地而升하니 唯地下則爲霧露之所聚라”, 景岳: “南方은 低下而濕 故로 水土弱而多霧露라”, 張: “地陷東南 故로 其地下而水土弱하고 低下則濕 故로 霧露之所聚라”, 高: “地陷東南 故로 其地下하고 地高則剛이나 地下則柔 故로 水土弱하고 地土卑下하면 水濕從之 故로 霧露之所聚也라”, 姚: “霧露者는 濕氣之所升이니 南方은 卑濕 故로 多霧露라”, 白話解: “其地勢低下하야 水土弱而多濕하고 熱蒸濕氣上升 則多霧露라”

52)王: “言其所食不芬芳이라”, 馬: “其民이 嗜酸味而食附하니 附者는 氣之腐者也라”, 景岳·姚: “附는 腐也니 物之腐者는 如豉·鮓·醃之屬이 是也라”, 白話解: “當地居民은 是嗜食酸味和製成糜爛의 魚肉食品이라”

53)張: “附는 腐也니 如豉·鮓·醃之類가 物之腐者也라 金西銘에 曰夫氣爲陽 味爲陰이라하니 東方은 主春生之氣 而民嗜藏下之鹹하고 南方은 主浮長之氣 而民嗜收斂之酸이 有若陽鹿之嗜陰龜하고 潛龍之嗜飛燕하니 皆出于天性之自然也라”

54)高: “霧露所聚하니 其民이 故로 嗜酸而食腐라 東南地弱 則嗜生我之味하야 其民이 嗜酸하니 木生火也오 上文의 東方嗜鹹은 水生木也라 西北地土有餘 則不言所嗜矣라”

55)王: “酸味는 收斂 故로 人皆肉理密緻오 陽盛之處 故로 色赤이라”, 馬: “酸味는 收斂 故로 肉理緻密오 陽盛之處 故로 色赤이라”, 景岳: “嗜酸者는 收斂 故로 其民이 緻理요 南方은 屬火 故로 其色赤緻密也라”, 白話解: “多食酸 則斂하고 多食魚肉 則營養充足하니 所以他們的脈理密致而色紅이라”

50)王: “法夏氣也라”, 馬: “天地溫厚之氣는 在于南方 故로 南方者는 天地所長養이오 陽氣最盛之處也라”, 景岳: “天之陽은 在南 故로 萬物長養 而在時則應夏라”, 張: “南方은 主夏長之氣하니 是以로 爲陽熱所盛之處라”, 高: “南方은 火也 故로 爲天地之所長養이오 陽氣所盛之處也라”, 白話解: “南方氣候는 炎熱하야 好似四季中夏天的陽盛而萬物繁榮의 氣象이라”, 今釋: “長養은 卽生長養育이니 南方엔 陽氣充足 故로 宜萬物生長養育이라”

張高는 “신맛은 收斂作用이 있으므로 肌肉과 腠理를 緻密하게 하고, 신맛을 즐겨 먹으면 木味는 火氣를 生하여 밖으로는 赤色이 나타난다.56)”고 하였다.

【25】其治宜微針；王今釋白話解는 “微는 가늘고 작다는 뜻이니, 南方에서는 이러한 鍼으로 氣血의 盛衰를 調節하여 병을 치료하였다.57)”고 하였고, 張은 “南方의 氣는 외부로 浮長하므로 微鍼으로 皮膚를 刺鍼해야 한다. 微鍼은 그 鍼이 微細하여 淺部를 刺鍼하는데 사용된다.58)”고 하였다.

【直譯】

南方은 天地가 萬物을 잘 자라게 하며, 陽氣가 盛한 곳이다. 地勢는 낮고 水質과 土質이 弱하여 霧露가 모이는 곳이니, 그 곳의 사람들은 신맛과 醱酵된 飲食物을 좋아하여 肌肉과 腠理가 緻密하고 赤色을 띠며, 攣痺病이 發生하니, 그 治法은 微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九針은 또한 南方으로부터 由來하였읍니다.

第5章. 中央의 病證과 治法

【原文】

中央者는 其地平以濕하여 天地所以生萬物也衆16)[26]하니 其民이 食雜而不勞[27]라 故로 其病이 多痿厥寒熱[28]하니 其治는 宜導引按蹻[29]라 故로 導引按蹻者는 亦從中央出也라 故로 聖人이 雜合以治하여 各得其所宜17)[30]라 故로 治所以異而病皆愈者는 得病之情하여 知治之大體也 일세 니이다

【校勘】

56)張: “酸味는 收斂 故로 肉理緻密이라 酸乃木味 故로 外見赤色이라 金西銘에 曰五方之民이 舉東方之嗜鹹者 則見木色之黑하고 南方之嗜酸者 則見所生之赤하니 蓋色生于味也라”, 高: “酸味收斂 故로 其民이 皆緻理니 緻理는 腠理緻密也라 嗜酸則木生火 故로 緻理而赤色이라”

16)《周本》, 《朝本》에는 ‘天地所以生萬物也衆’ 중의 ‘地’ 밑에 ‘之’字가 더 있고, 滑抄本에는 ‘之’ 밑에 ‘衆’字가 없으며, 《太素》와 《醫心方》에는 모두 ‘天地所以生萬物也衆’이 ‘天地所生物色子衆’으로 되어 있다.

17)《語譯》에 “‘所宜’의 ‘所’자는 衍文이다. 王注에 ‘隨方而用, 各得其所宜’라 한 것으로 보아 그의 所據本에도 ‘所’字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字句解】

【26】中央者 其地平以濕 天地所以生萬物也衆; 王景岳張高姚 등은 “中央은 土의 位이고, 地平은 土의 體이며, 濕은 土의 氣이며, 萬物을 化生하는 것은 土의 작용이다. 中央에 있으면서 氣를 四方으로 流行시키므로 萬物을 널리 많이 발생시킨다.59)”고 하였고, 白話解는 “中央은 平原으로 氣候가 따뜻하며 平坦하여 政治經濟의 중심지가 되고, 人口가 密集하고 經濟的으로 富裕하니 이러한 것이 天地가 萬物을 發生시키는 것과 비슷하다.60)”고 하였다.

57)王今釋: “微는 細小也니 細小之鍼은 調脈衰盛也라”, 白話解: “治療上에 用微鍼하여 以調其氣血하면 病就好了니 這是南方居民經常使用的治療方法이라”

58)張: “南方之氣는 浮長于外 故로 宜微鍼以刺其皮라 夫鍼有九式하니 微鍼者는 其針이 微細하니 淺刺之鍼也라”

59)王: “法土德之用 故로 生物衆然이라”, “景岳: 土體平하고 土性濕하며 土王于四方之中 而爲萬物之母 故로 其生物也衆이라”, 張: “中央은 土之位也오 地平은 土之體也오 濕者는 土之氣也오 化生萬物也 土之德也라 位居中央 而氣概四方하니 是以로 所生萬物之廣衆也라”, 高: “中央은 土之正位也 故로 其地平以濕이라 平者는 不高不陷이오 濕者는 滋潤也니 平正滋潤하면 萬物乃生 故로 天地所以生萬物也衆이라”, 姚: “土王于中하여 平은 其體 而濕은 其性也라 中은 爲四方之會오 土는 爲萬物之母 故로 衆物이 生焉이라”

60)白話解: “中央地區爲平原이니 氣候溫暖하고 地

[27]其民食雜 而不勞; 王景岳張高姚 등은 “各地의 사람들과 物資가 모이는 곳이므로, 여기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勞力이 적으며 安逸하고 奢侈하며 飲食物의 種類도 다양하여 體質이 比較的 弱하다.61)”고 하였다.

[28]其病多痿厥寒熱; 王·白話解는 “濕邪가 侵襲하면 痿厥病이 發生하고, 身體가 虛弱하면 外邪의 侵襲을 쉽게 받아 寒熱이 발생한다.62)”고 하였고, 景岳姚는 “土氣는 脾臟과 通하여 四肢를 主宰하므로 濕이 鬱滯되면 痿病이 되고 寒熱이 있으면 厥이 된다. 中央은 四方의 氣가 모이는 곳이므로 或은 惡寒하고 或은 發熱한다.63)”고 하였고, 張은 “四肢는 諸陽의 本이니 痿痺는 手足의 氣가 逆行하여 痿弱하게 되어 作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中央에 사는 사람들은 勞動하지 않으므로 氣血이 四肢를 營養하지 못하여 痿厥寒熱病이 發生한다.64)”고 하였고, 高는 “勞動을 하지 아니하면 四肢가 痿弱하게 되어 저리고 시린 痿厥病이 發生하고, 여러가지 飲食을 섞어 먹으면 陰陽이 乖錯되므로 그 病은 陰陽이 偏勝하게 되어 寒熱病이 發生하게 된다.65)”고 하였다.

[29]其治宜導引按蹻; 王·馬·今釋은 “導引은 筋骨과 四肢關節을 搖動시키는 것이고, 按은 皮膚와 肌肉을 눌러 문지르는 것이고, 蹻는 手足을 민첩하게 들어올리는 것이니, 中央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神을 기르고 氣를 調節하는 주된 方法으로 삼았다.66)”고 하였고, 景岳姚는 “導引은 筋骨과 肢節을 搖動하여 氣血을 運行시키는 것을 말하고, 按은 눌러서 문지르는 것이며, 蹻는 陽蹻와 陰蹻를 의미한다.67)”고 하였고, 張은 “導引은 손을 맞부딪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고, 按蹻는 다리를 按摩하는

것이다. 中央의 化氣가 四旁으로 통하지 않으므로 四肢를 움직이고 안마를 하여 血氣를 끌어서 流通시키는 것이다.68)”고 하였고, 高·白話解는 “그 治法은 導引을 하여

61)王: “四方輻輳 而萬物交歸 故로 人食紛雜 而不勞也라”, 景岳: “四方輻輳하고 萬物交歸 故로 民食雜하고 土性和緩 故로 不勤勞也라”, 張: “四方輻輳하고 萬物會聚 故로 民食紛雜하고 化養于中 故로 不勞其四體라”, 高: “萬物會聚 故로 其民食雜하고 四方來歸 故로 其民不勞라”, 姚: “無物不有 故로 食雜하고 居中四應 故로 不勞라”, 白話解: “由於是經濟政治的中心 因而各地之人民及物資均在此處集中하니 所以로 當地居民의 生活이 比較其他地區 安逸奢侈하고 食物의 品種도 也比較複雜하야 體質比較衰弱이라”, 今釋: “雜은 指品種多니 食雜은 指吃的食物品種繁多라 不勞는 指不過分의 勞累라”

62)王: “濕氣在下 故로 多病痿弱氣逆及寒熱也라 陰陽應象大論에 日地之濕氣感 則害皮肉筋脈이라하니 居近於濕故爾라”, 白話解: “中於濕 則成痿厥하고 體弱 則易受外邪侵襲 而爲寒熱이라”

63)景岳·姚: “土氣는 通脾而主四肢 故로 濕滯則爲痿 或寒熱則爲厥이라 中央者는 四方之氣交相集 故로 或寒或熱也라”

64)張: “四肢는 爲諸陽之本이니 痿痺者는 手足之氣逆 而痿弱不用也라 平脈篇에 日陽脈不足에 陰來乘之則 洒淅惡寒하고 陰脈不足에 陽往乘之 則發熱하니 寒熱者는 手足三陽三陰之脈病也라 蓋言中土之民은 不勞其四體 而氣血不能灌溉于四旁하니 是以로 多痿厥寒熱之病也라”

65)高: “不勞 則四肢不强 故로 其病多痿厥하니 痿厥은 痿痺厥逆也오 食雜 則陰陽乖錯 故로 其病多寒熱하니 寒熱은 陰陽偏勝也라”

66)王·今釋: “導引은 謂搖筋骨 動肢節이오 按은 謂抑按皮肉也오 蹻는 謂捷舉手足이니 中央之人이 用하야 爲養神調氣之正法이라”, 馬: “謂導引者는 搖筋骨 動肢節也오 按은 謂抑按皮肉也오 蹻는 謂捷舉手足也니 中央之人이 用之라”

67)景岳·姚: “導引은 謂搖筋骨 動肢節하야 以行氣血也오 按은 捏按也오 蹻는 卽陽蹻陰蹻之義니 蓋謂推拏谿谷蹻穴하야 以除疾病也라 病在肢節 故로 用此法이라”

68)張: “導引者는 擊手而引欠也오 按蹻者는 喬足以按摩也라 蓋中央之化氣가 不能充達于四旁 故로 宜導按其四肢하야 以引血氣之流通也라”

勞平坦多濕하야 爲當時政治經濟中心이오 人口密集하고 經濟繁榮하니 這種氣象好似天地生萬物一樣이라”

陰陽을 調節하고, 按蹻를 하여 四肢를 부드럽게 한다.69)”고 하였다.

[30]聖人 雜合以治 各得其所宜; 王·景岳·張·高·今釋은 “聖인은 五方의 病에 拘碍받지 않고, 五方의 治法에 攄매이지 않는다. 東方의 治法이 砭石이나 西·北·南·中에서도 모두 사용하고, 西方의 治法이 毒藥이나 東北南中에서도 모두 사용하며, 北方의 灸燭과 南方의 微鍼과 中央의 導引按蹻도 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治法을 配合하여 患者에게 適合한 治療를 한다.70)”고 하였다.

【直譯】

中央은 地勢가 平坦하며 濕潤하여 天地가 化生하는 萬物도 많으니 그곳의 사람들은 여러가지 飲食을 먹으며 勞動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痿厥寒熱病이 많이 발생하니 그 治法은 導引按蹻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導引按蹻는 中央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聖인은 여러가지 治法을 配合하여 治療에 適合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治法은 비록 다르나 病이 모두 治愈될 수 있는 것은 病情을 據得하여 治療의 大體를 알기 때문입니다.

IV. 語 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醫師가 病을 治療할 때에 한가지 病을 각각 다른 方法으로 治療하나 모두 낫게 되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九州八方은 모두 天氣에 통하니 天에는 春夏秋冬의 四時가 있고, 地에는 生長化收藏의 五氣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도 역시 여기에 相應하니 自然環境

69)高: “其治는 宜導引하여 以和陽陰하고 按蹻하여 以和四肢라”, 白話解: “在治療時에 可用氣功療法和按摩療法하여 以調暢氣血 柔和筋骨이라”

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東方은 春生의 時令을 主宰하여 天地의 陽氣가 發生하기 시작하는 곳이고 물고기와 소금이 생산되는 곳이다. 바닷가와 물가라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찐 것을 좋아하며, 地域이 비록 물가로서 環境이 좋지 않으나 產物이 豊富하므로 그것에 安住하고 그 產物을 달게 먹는다. 물고기는 性質이 火에 屬하여 많이 먹으면 內部에 熱을 積滯시키고, 찐 맛은 血을 凝滯시키므로 그곳 사람들은 모두 顏色이 검고 腠理가 성글며, 그 病은 모두 癰瘍이 되니 砭石으로 쪼려 熱을 밖으로 내보내고, 또 血의 運行을 疏通시킬 수 있어서 病이 낫게 된다. 그러므로 砭石은 東方으로 부터 由來하였읍니다.

西方은 高原으로 山이 많아서 金과 玉이 많이 생산되고, 모래와 자갈이 많으며, 氣候가 乾燥하면서도 바람이 많고 가을기운과 흡사한 곳으로 天地의 氣가 收斂하는 곳이다. 그 곳 사람들은 丘陵에 居住하고 바람이 많으며 水質과 土質이 거칠어 옷을 입지 않고 毛布와 草蓆으로 생활하며, 그들은 酪製品과 肉類 등을 많이 먹으므로 脂肪質이 많아 肥滿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肌肉이 充實하고 皮膚과 腠理가 緻密하므로 外部에서 邪氣가 人體로 侵犯할 수가 없고, 飲食, 勞倦, 七情에 의한 內傷病이 생긴다. 臟腑의 病은 輕清淡白한 藥으로는 治療할

70)王: “隨方而用各得其宜하니 唯聖人이라야 法乃能然矣라”, 景岳: “雜合五方之治 而隨機應變 則各得其宜矣라”, 張: “夫天有四時之氣하고 地有五地之宜하니 民有居處衣食之殊하야 治有鍼灸藥餌之異라 故로 聖人이 或隨天之氣하고 或合地之宜하며 或隨人之病하야 或用鍼灸毒藥하고 或以引導按摩하야 雜合以治나 各得其宜라”, 高: “聖인은 不拘五方之病하며 不泥五方之宜하야 如東方砭石 而西北南中도 皆用之하고 西方毒藥 而東北南中도 皆用之하며 北方灸燭과 南方微鍼과 中央導引按蹻 而諸方에 皆用之 故로 雜合以治나 各得其宜라”, 今釋: “雜合以治는 將各種方法을 有機配合하야 對病人進行治療라”

지 아니하나 産物이 豊富함으로 그것에 安住하고 그 飲食을 달게 먹는다고 보았으나 인간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생활방식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적응하게 되므로 姚의 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其民陵居’를 王·姚 등은 穴居라 하였으나, 현재 中國 서북부지역이 황토가 많은 高原으로 산기슭에 거주한다고 본 馬·景岳·張 등의 說이 실제와 符合된다.

‘病生於內 其治宜毒藥’에서 ‘毒藥’을 王 등은 藥物의 總稱이라 하였고, 張은 有毒한 藥이라고 하였고, 姚는 氣味가 重厚한 藥物이라 하였으나, 本篇에서 地域에 따라 각각 相異한 治療法이 由來하였다는 것을 論하였으므로 藥物을 輕重厚薄으로 細分하기 보다는 藥物療法를 總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방사람들의 ‘緻理而赤色’을 王 등은 酸味를 먹어 肌肉과 膜理가 緻密하다고 하였으나, 北方은 寒冷한 氣候로 인하여 膜理가 緻密하여 外邪가 侵入할 수 없고 臟寒으로 因한 滿病이 發生하고, 南方은 더운 지방이므로 ‘緻理’가 아닌 ‘疎理’가 옳다고 본다. 酸味를 즐겨 먹는 것은 發散이 심하므로 平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즐겨먹게 되는 자연스런 現狀이다.

參考文獻

1. 王 冰; 黃帝內經素問, 珍倣宋版印, 中華書局, 1972.
2.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4.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5. 朴 炅 譯; 國譯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4.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7. 林 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8.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9.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0. 馬 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11. 吳 崑; 黃帝內經素問吳註,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83.
12. 高世祜;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5.
13. 北京中醫學院; 內經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2.
14. 王 冰;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旋風出版社, 台北, 1979.
1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7.
16. 姚止庵撰; 素問經注節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17. 王琦 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8. 黃元禦撰; 黃元禦醫書十種(上)素問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9. 劉之謙外二人編著; 黃帝內經素問吳註評釋,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88.
20. 李中梓原輯; 內經知要, 新文豐出版公司.